

『개역개정』 공동서신 본문에 대한 개정 제안

채영삼*

1. 베드로전서 2:11-12의 “제어하라”와 “가져”

먼저 『개역개정』 베드로전서 2:11의 “제어하라”는 ἀπέχεσθαι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정욕을 통제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그 접두어(ἀπο)가 시사하듯이 ἔχω 동사가 뜻하는 바를 부정하는 의미가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그런 정욕들을 붙잡아 소유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경계의 의미가 강한 표현이다.

실제로 NKJ, NIV, NRS, NAS와 같은 주요 영어 번역본들은 일관되게 ἀπέχεσθαι를 원문에 충실하게 “abstain from”으로 옮겨놓았다. 『개역개정』의 “제어하라”는 본문은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는 청중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설혹 이런 표현이 본문의 의도를 단순한 ‘금욕주의적’인 권고로 왜곡시켜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점은 11절과 12절의 문맥 안에서 ἀπέχεσθαι가 “제어하라”의 적극적인 의미를 띠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제어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쉬운 번역이지만, 문맥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11절의 ἀπέχεσθαι가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의 ἔχοντες와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11절의 ἀπέχεσθαι는 부정적인 권고인 반면, 12절의 ἔχοντες는 긍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 youngschae12@bu.ac.kr.

정적인 권고이다. 동일한 어근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대조적인 이런 동사들의 목적어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즉, 11절은 교회가 그 속한 사회에서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지내면서 부딪히는 ‘정욕은 피하고’, 그뿐 아니라 그 이방인들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은 취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11절과 12절에서 대조되는 ἔχω 동사의 원래 의미를 살려서, 11절의 ἀπέχεσθαι는 ‘붙잡지 말라’로 하고 12절의 ἔχω는 ‘붙잡으라’라고 번역하면, 문맥 안에서 대조되는 뉘앙스를 잘 살려낼 수 있다고 본다. 11-12절에서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 같은 교회가 부딪히는 문제는 결국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즉 ‘소유할 것인가’의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답으로서 2:11-12의 본문은, 사회 속에서 나그네 된 교회는 정욕들을 ‘붙잡지 않음’으로써 세상과 같은 길로 끌려갈 위험을 피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붙잡아’ 소유함으로써 도리어 ‘선한 행실에 욕심을 내라’는 식의 대조적인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2. 베드로전서 3:21의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개역개정』 베드로전서 3:21 끝부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라는 번역은, 원래 『개역한글』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라고 번역되었던 본문이다. 최근에 발간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서는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로 수정 보완되었다. 베드로전서의 ‘거류민과 나그네’된 교회론에 관련해서 3:21c의 이 문장은 그 문학적 위치나 문맥에 있어서 결정적인 본문이다. 『개역개정』을 개정하게 된다면 최근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왜 그러한가?

『개역개정』 3:21c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는 가능한 번역이기는 하지만, 사전적, 문법적으로나 인접한 전후 문맥 안에서 ἐπερωτήματα εἰς θεόν이 가질 수 있는 ‘역동적’ 의미를 축소하고 정체시키는 번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1) 자세한 논증은, 채영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21c의 번역과 해석”, 『신약논단』 16:2 (2009), 589-628을 참조하라.

첫째, ἐπερώτημα의 사전적 의미들 가운데는 ‘요청/간구’와 ‘서약/맹세’ 또는 ‘응답’이 포함되는데, 『개역개정』은 이들 가운데서 가장 소극적인 의미인 ‘간구’를 택했다. KJV나 NIV의 경우도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서약/맹세’(pledge)로 번역함으로써 다소 적극적인 의미를 선택하는데, 『개역개정』의 “선한 양심의 간구”는 대체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달라고 요청’(목적격 2격)하는 간구 정도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21c절의 ἐπερώτημα εἰς θεόν이 포함된 3:16-22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드라마틱한 과정 혹은 ‘여정’을 묘사한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케뤼그마(kerygma)’를 배경으로 교회의 세례를 설명하는 3:16-22를 열고 닫는 주제가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사실이다(16, 21절). 즉, 21c절의 선한 양심의 ἐπερώτημα εἰς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 문구가 전후 문맥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방향성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3:16-22의 문맥은,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방향성에 덧붙여 노아의 방주 역시 물로 말미암은 심판뿐 아니라, 그 물로 말미암은 적극적 구원 곧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중첩시킨다(20, 22절). 마찬가지로 교회의 세례의 의미 역시 단지 죄 사함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21-22절). “선한 양심의 간구”는 이 문맥적 흐름의 역동성을 놓친 표현인 듯 보인다.

넷째, 사전적으로나 문법적으로도, ἐπερώτημα εἰς τι는 그 대상(τι)을 ‘향해 나아가는 강렬한 열망’을 표현하는 관용구로서(J. H. Thayer) ‘…을 향하여 찾아간다/나아가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다.

다섯째, 『개역한글』의 베드로전서 3:21c의 번역은, 『구역』(舊譯, 1911)과 이를 번역한 선교사들과 그들을 도운 조사들이 참고한 <한문문리역>(漢文文理譯)의 전통을 따랐는데, 이는 문맥에 충실한 번역이었다.²⁾ 『개역개정』은 이런 문맥적 의미를 배제했을 뿐 아니라, 사전적 의미에서도 최소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좋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이 ἐπερώτημα εἰς θεόν을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옮긴 것은, ἐπερώτημα가 갖는 ‘응답’의 적극적인 의미를 채택하면서도, 문맥 안에서

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37, 45 참조.

그리스도의 승천이나 방주가 향하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라는 방향(벧전 3:22, 또한 1:4; 벧후 3:10)을 놓치지 않은 적절한 번역으로 추천할 수 있다.

3. 베드로후서 3:10c의 “드러나리로다”

『개역개정』은 베드로후서 3:10c의 εὑρεθήσεται를 『개역한글』에서처럼 “드러나리로다”로 번역하고 마찬가지로 난외주에 ‘타지리라’는 이문(異文)의 가능성을 제시해 놓았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네스틀레 알란트 28판(NTG²⁸)의 제안에 따라 정반대의 부정적 의미를 가진 이문인 οὐχ εὑρεθήσεται를 원문으로 채택하여 이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로 번역했다. 그 대신 기존의 ‘드러날 것입니다’라는 번역이나 또는 ‘타질 것입니다’라는 이문들의 가능성은 난외주로 돌려놓았다.

따라서 『개역개정』이 베드로후서 3:10c의 번역을 개정한다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경우처럼 NTG²⁸의 οὐχ εὑρεθήσεται를 원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NTG²⁸이 채택한 οὐχ εὑρεθήσεται는 내적, 외적 증거에서 기존의 εὑρεθήσεται를 원문으로 판단한 근거들에 비해 믿을만한 근거들을 내어놓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³⁾ 정말 그러한가?

NTG²⁸이 새로운 방법론으로 채택한 CBGM(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은 기본적으로 필사자에게 있어 저본으로 활용되었을 다수의 사본들 간의 유추 관계를 통해 추정된 ‘계보’에 근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문제가 되는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들의 특징, 시기, 장소의 중요성보다는 변형된 이문들의 통계적 계보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어서, 방법론 자체에 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⁴⁾

베드로후서 3:10c의 본문을 택할 때 외적 증거에 관한 방법론적 타당성에 관한 논란을 제쳐둔다면, 내적 증거로서 문맥상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εὑρεθήσεται가 가장 오래된 본문이며 다른 독법들이 유래된 기원이라고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렇게 읽을 때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⁵⁾ 정말 그러한가?

3) NTG²⁸에서 벧후의 경우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 다른 독법을 택한 본문이 가장 많은 10회에 이른다(2:6, 11, 15, 18, 20; 3:6, 10, 16[×2], 18). 그리고 이중에서도 3:10의 경우는 그 독법의 변화가 가장 강렬한 경우에 해당한다.

4) S. C. Carson, “A Bias at the Heart of the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CBGM)”, *JBL* 139:2 (2020), 319-340을 참조하라; ECM(Editio Critica Maior)은 독일 과학과 인문학 학회 연합(UGASH)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2030년에 완성될 계획이다.

5) B.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2nd ed. (New York: UBS, 1994),

흥미로운 사실은, 14b절에서 수신자 성도들이 그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 때, 그 ‘나타나기를’에 해당하는 εὐρεθῆναι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10c절의 εὐρεθήσεται와 14b절의 εὐρεθῆναι는 서로 상응하며 강화하는 병행일 수 있다. 둘 다, 종말에 첫 번째 하늘과 땅이 해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 날에 드러날 불경건과 경건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3:7-13에서 전개되는 ‘불에 의한 세상의 심판’과 ‘경건’의 문제는, 5-6절에 나오는 ‘물에 의한 세상의 심판’과 ‘경건’의 문제와 또한 병행을 이룸을 알 수 있다.⁶⁾ 이외에도, 10c절의 εὐρεθήσεται가 문맥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많은 이문들과 독법들을 검토하면서, 정말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결국 NTG²⁸의 새로운 본문비평 방법론에 의한 파격적인 독법을 따라, 『개역개정』의 베드로후서 3:10c의 “드러나리로다”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의 경우처럼 개정하는 문제는, 아직은 더 신중하고 확실한 논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4. 베드로후서 3:13의 “의가 있는 곳인”

『개역개정』은 베드로후서 3:13b의 κατοικεῖ를 “(의가) 있는”으로 번역했다. 『개역한글』의 “(의가) 거하는”을 수정한 것인데, 원문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표현을 바꾸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하는”을 그저 “있는”으로 바꾸어야 했던 이유가 분명치 않다.

원문의 κατοικεῖ는 말 그대로 ‘집에 거주하는 듯이 거(居)하는’ 모양을 가리킨다. 그저 무미건조하게 ‘있다’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래서 NJV는 “dwell”이라는 단어를 택했고, NRS는 원문의 뉘앙스를 담아 보다 실감나게 “(righteousness) is at home”으로 표현했다. NIV도 같은 맥락에서 “home (of righteousness)”로 번역했다.

636; G. Van Den Heever, “In Purifying Fire: World View and 2 Peter 3:10”, *Neotestamentica* 27:1 (1993), εὐρεθήσεται를 택할 경우 문맥상 설명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독법들을 제시한다.

6) 채영삼,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 베드로후서의 이해』 (서울: 이레서원, 2017), 425-463. “말씀과 물, 옛 세상의 멸망”(6절)과 “말씀과 불, 현재 세상의 보존과 멸망”(7절), 특히, “말씀과 세상의 재창조”(3:8-14)를 참조하라.

문학비평의 발전 이후 최근의 학계는,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보다 베드로전서와 갖고 있는 문학적, 신학적, 정경적인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다.⁷⁾ 베드로전서에서 ‘집에 거한다’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 ‘집이 없는 나그네’라는 대조적인 개념과 함께 매우 결정적인 주제를 형성한다.⁸⁾ 이는 베드로후서 3장의 이 세상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라는 주제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임시거주 외국인, 거류민, 여행자’의 개념으로 묘사되는 교회는(벰전 1:1-2; 2:11), 베드로후서가 묘사하는 더러움과 썩어짐 그리고 일시성을 특징으로 갖는 ‘세상’이라는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벰후 1:4; 2:9, 20; 3:6)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와 행인’ 된 교회가 이방인들의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낯섦’(‘이상히’, ξενί-합성어들)의 모티브 역시, 그들의 상황과 영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특징이 된다(4:4, 9, 12). 베드로후서에서 교회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여 ‘영원한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거(居)하기에 합당한 경건한 신적 성품에서 성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 받는다(벰후 1:2-11; 3:10-14).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베드로후서 3:13b를 “(거기는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이라고 번역한 것은, 결과적으로 κατοικεί가 베드로전·후서에서 갖는 함의를 잘 반영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덧붙여진 표현으로 보 이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자리 잡고”라는 표현은, 현재의 세상에서는 ‘정의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그 이면의 뉘앙스를 전달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는 세상을 지적하는 베드로후서의 문제의식과도 잘 어울린다. 『개역개정』의 “(의가) 있는”은, ‘(의가) 거하는’이나 ‘(거기는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훨씬 나은 번역이다.

5. 요한1서 1:2; 4:14; 5:6-10의 “증언하는”

요한1서에서 μαρτ-어근을 가진 명사형이나 동사형이 사용된 곳은 1장, 4장, 5장의 여섯 절에 걸쳐 모두 12회에 이른다. 명사형 μαρτυρία가 6회(5:9[×3], 10[×2], 11) 사용되었고, μαρτυρέω가 분사형이나 동사형으로 모두 6회(1:2; 4:14; 5:6, 7, 9, 10) 사용되었다.

7) J. B. Green, *1 Peter* (Grand Rapids: Eerdmans, 2007), 234-239.

8) 예컨대, J. H. Elliot, *A Home for the homeless: A Sociological Exegesis of 1 Peter, Its Situation and Strate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또는, M. Chin, “A Heavenly Home for the Homeless: Aliens and Strangers in 1 Peter”, *Tyndale Bulletin* 42 (1991), 92-112를 참조하라.

『개역한글』은 동사형 명사형으로 사용된 12회의 모든 경우에 ‘증거’ 또는 ‘증거하다’로 번역했다. 대조적으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12회 모든 경우를 ‘증언’ 또는 ‘증언하다’로 바꾸었다. 흥미롭게도 『개역개정』은 그 ‘증거’와 ‘증언’을 뒤섞어 번역하는 어중간한 단계를 보여준다.

먼저, 『개역한글』은 μαρτυρέω의 동사형이나 분사형에서는 모두 ‘증언하다’ 또는 ‘증언하는 이(사람 또는 하나님)’로 옮김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명사형 μαρτυρία가 사용된 경우에는 ‘증언’과 ‘증거’를 혼용해서 번역한다. 가장 혼란스러운 본문은 5:9인데, 여기서 ‘사람들의 증언’이나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때, 모두 명사형 μαρτυρία가 사용된다. 왜 동일한 명사 μαρτυρία가 ‘사람들의’ 것일 때는 ‘증언’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될 때는 ‘증거’가 되는가?

하지만 일정한 패턴도 유지된다. 5:9에서처럼, 10절(×2)과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는 명사형 μαρτυρία를 일관되게 ‘증거’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경우이든(5:9, 10) 사람의 경우이든(1:2; 4:14), μαρτυρέω의 동사적/분사적 행태는 모두 ‘증언하다’로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명사형 μαρτυρία의 경우에만, 사람의 것이면 ‘증언’이고, 하나님의 것이면 ‘증거’라고 따로 번역하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를 두었을까? 추측하기에 『개역개정』의 이런 혼돈스런 번역은, 원문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국어의 용법에 관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증언’(證言)은 주로 ‘말로’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증거’(證據)는 그 ‘결과’로서 남아 있는 무엇을 가리킨다. 특별히 최근의 국문법에서, ‘증거’라는 명사를 동사형으로 사용해서 ‘증거-하다’라는 표현은 점차 사용되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표기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증거하다’라는 표현이 ‘증명하다’의 옛말로 취급되기도 하지만(우리말샘), 현재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표현이다(표준국어대사전). 흥미롭게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증거하다’는 기독교에서 ‘증명하는 증인이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NIV, KJV, NRS같은 주요 영어 번역본들은 이를 witness나 testimony/testify로 번역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말의 경우와는 다르게 ‘말’과 ‘행동’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개역개정』이 ‘증언/증언하다’ 또는 ‘증거/증거하다’로 번역하는 μαρτυρία나 μαρτυρέω는 잘 알려진 바대로 원래 단순히 ‘말로만 하는 증명’을 뜻하지 않는다. 영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martyr가 위의 그리스어 원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단지 어원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신약과 초기 교회의

전통에서 μαρτυρία/μαρτυρέω가 표현하는 ‘증인’으로서 성도가 ‘증거하는’ 행위는 단지 ‘말’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삶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는 표현이다.

『개역개정』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증언하다’로 축소한 것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행동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요일 1:1-4; 3:2; 4:9; 요 1:14).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말씀하신 사건’(word-event)이다(히 1:1-2).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μαρτυρία나 μαρτυρέω를 모두 ‘증언/증언하다’로 번역한 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 ‘증언/증언하다’보다는 ‘증거/증거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국문법으로도 가능하고 원문에 일관되며 신학적으로 안전하다.

6. 제안

이상의 논거들에 의하여, 『개역개정』에서 베드로전서 2:11-12의 “제어하라”와 “가져”는 각기 ‘붙잡지 말라’와 ‘붙잡으라’로, 베드로전서 3:21의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는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로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베드로후서 3:10c의 “드러나리로다”는 그대로 유지하며, 베드로후서 3:13의 “의가 있는 곳인”은 ‘의가 거하는 곳인’으로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요한1서 1:2; 4:14; 5:6-10에서 “증언/증언하는”은 모두 ‘증거/증거하다’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7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5일)